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1. 7. Vol. 314



기획특집_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생활체육으로 지켜요!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계획 안내



접종대상		사전예약시기	접종 일시	백신 종류	접종 기관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0세~74세 어르신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자 대상)	6월 23일 0시~ 6월 30일 18시	7월 7일 ~ 7월 9일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6월 예약 조기마감에 따른 미예약자 등)	6월 28일 0시~ 6월 30일 18시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관할 교육청과 예방접종 센터 간 일정 조율 후 학교별 접종	7월 19일 주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교육·보육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7월 중	7월 중		
	고교 3학년 제외 기타 대입수험생 (재수생 등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대입수험생)	7월 말	8월 중		
50대 장년층 (50세~59세)	55세~59세	7월 12일 주	7월 26일 주	백신 도입량과 시기 고려하여 확정 예정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50세~54세	7월 19일 주	8월 초		
40대 이하* (18세~49세)		8월 ~	우선 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 후 접종	

* 40대 이하는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

[접종 사각지대 해소 계획]

-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접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접종 통해 종사자 접종편의 도모

양양소식

Vol. 314

CONTENTS

COVER STORY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생활체육으로 지켜요!
- 8 마을가는 길_ 서면 서림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어부(漁夫)들의 삶을 담은 인생음식



양양 몽돌소리길(설악해변)

의기양양

- 14 의정소식_ 제8대 양양군의회 출범 3년, 앞으로의 시간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군민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조선 인조 때 세운 양양의
타루비(墮淚碑)가 현산공원에 있다
- 18 YANGYANG NEWS
- 21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양양 전통시장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감사편지
- 28 공익광고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azhwoSAVBPje5rl_dvDw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14호

- | 발행일 2021년 7월 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omtom777@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생활체육으로 지켜요!



양양군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마음껏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뭘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상 속에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체육은 활발한 신체활동과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세 가지를 소개한다.



1. 국민 생활체육 게이트볼

어르신들에게 가장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게이트볼은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즐기는 국민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다. T자형 스틱으로 열 개의 공을 쳐서 경기장 내 3곳의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해 골풀에 맞히는 경기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영국에서는 ‘크로케’로 불리며, 국내에는 1980년대에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인기가 꾸준하다. 우리 군에서는 6개 읍면을 비롯해 강선리까지 모두 7곳의 전용구장에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데 양양군 게이트볼연합회 산하 7개의 클럽 122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게이트의 각도를 고려해서 어느 게이트

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공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기술과 판단력,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육체는 물론 두뇌운동까지 필요하다. 5명이 한 팀이 되는 단체전으로 팀마다 전략과 전술을 이끄는 주장이 따로 있으며, 화합하고 단결해야 하는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원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장점이 있다.

한 경기당 대략 30분 정도로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며, 클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4게임, 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다. 회원 연령층은 4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넓게 분포돼 있다.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단위·전국 단위 대회가 많으며, 실력이 좋으면 국제대회까지 진출할 기회도 있다.



*코로나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로 마스크를 벗고 촬영했습니다.

mini-interview

양양군 게이트볼연합회 박상귀 회장

“게이트볼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드 수를 읽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팀원들끼리 팀워크가 중요해서 똘똘 뭉쳐야 해요. 제가 7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려워요.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은데, 머리를 써야 하니까 전략을 짜는 묘미가 있어요. 게이트볼을 어르신들만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중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양군 게이트볼연합회 ☎010-3380-8985



2. 맞춤형 운동 그라운드 골프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를 변형하여 만든 운동 중 하나로 골프채로 지면 위에 공을 굴리거나 쳐서 홀에 넣는 경기이다. 기존 골프와 달리 공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굴리기에 힘도 덜 들고 허리 회전도 적어 신체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큰 규칙은 골프와 크게 다르지 않고, 망치처럼 되어있는 골프채를 이용하여 공을 쳐서 홀 안으로 넣으면 된다. 코스는 8홀로 구성되어 있고 홀에 넣기까지 몇 타수가 걸렸는지 비교하여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한다.

일본에서 생활체육으로 창안되어 국내에는 1993년에 전해졌으며, 일반 골프보다 경제적이고 좁은 장소에서도 상황에 맞게 코스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군에서는 다

소 늦은 2012년에 그라운드 골프협회가 창립되었으나 빠르게 성장해 현재 6개 읍면마다 클럽을 운영하며 170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현면과 서면에는 전용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양양읍은 남대천 둔치 경기장, 손양면은 공항구장, 그 외에는 게이트볼장에서 시간대를 정해놓고 함께 사용하고 있어 클럽별로 시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최장 거리가 50미터로 짧기 때문에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픈 어르신들도 그라운드 골프를 통해서 가볍게 걸으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40대부터 90대까지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하는 경우도 많다. 일주일에 3일, 30분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자는 ‘스포츠 7330운동’을 확산시키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mini-interview

양양군 그라운드골프협회 김태상 회장

“그라운드 골프는 과격하지 않아서 건강관리 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저도 원래 일반 골프를 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여건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라운드 골프를 시작하게 된 분들이 많아요. 개인전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회원 중에는 89세에 대회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고, 공을 치고 걷고 하다 보니 운동하는 일이 재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7월 8일 협회장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그라운드골프협회 ☎ 010-8369-5260

3. 골프의 축소판 파크 골프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것으로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길 수 있다. 용어, 매너, 규칙 등이 일반 골프와 거의 비슷하고, 코스는 연못 해저드 같은 위험한 코스 없이 축소되어 있으며 골프채 하나만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무로 된 채로 나무 공을 치기 때문에 장타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최대 비거리가 50~70m에 이를 정도로 운동량은 적지 않다.

일본에서 시작돼 1998년도에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양양군 파크골프협회는 2012년에 결성된 이후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재 정회원 2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반 골프와 파크 골프를 같이 치는 이들도 있고, 아예 파크 골프로 전향하는 회원들도 많다. 골프보다 경제적이고, 혼자하거나 팀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정에 맞춰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회원들의 연령층은 50대부터 80대까지 구성되어 있다.

송이조각공원 내에 18홀로 사용하던 파크골프장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 날이 밝아 오는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회원들도 있으며, 날이 저무는 저녁 8시까지 회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한 번에 20~30명 정도가 함께 운동하며 하루에 150명 정도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7월



초 송이조각공원 내에 신설된 27홀의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개장할 예정으로 파크 골프의 인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mini-interview

양양군 파크골프협회 홍순봉 회장

“파크 골프만큼 시간 보내기 좋은 운동이 없어요. 공 하나에 골프채 하나만 들고 언제든지 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칠 때마다 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보통 7~8천 보 정도의 걸음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어서 여가생활로 아주 좋습니다. 최고 거리와 최단 거리를 골프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이 크기 때문에 휘두르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량이 적지 않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기본교육을 받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 운동하며 심리적 해방감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양양군 파크골프협회 ☎010-5672-3889

〈바로 잡습니다〉

본지 6월호 기획특집의 ‘인재육성장학기금 100억원 달성의 주인공들’ 명단 중 8페이지의 손태영으로 기재한 사항을 해담마을영농조합법인으로, 9페이지의 장형열로 기재한 사항을 양양신용협동조합으로 각각 바로 잡습니다. 장학기금을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서면 서림리

양양군 관내 6개 읍면 중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서면은 90% 이상이 산악 지대다. 서면에서도 백두대간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청첩산중 '서림리'는 과거 산골 오지의 이미지를 벗고 양양을 대표하는 체험마을로 거듭나는 중이다.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함께 짜릿하고 이색적인 레포츠로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산골 오지에서 체험마을로 변신
산과 산 사이 해를 담은 해담마을
온 마을 주민이 마을로 출퇴근하는 꿈



산골 오지에서 농촌체험마을로 유명세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해담마을'이라는 커다란 간판과 함께 양쪽으로 화사한 꽃들이 반긴다.

공식적인 행정명은 '서림리'이지만 체험마을로 해담마을이 유명세를 얻으면서 이제는 더 익숙해진 이름이 됐다. 매표소를 지나자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인 수륙양용차(물과 땅 위에서 모두 다닐 수 있게 만든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평일 오전에도 부지런한 관광객들은 벌써 수륙양용차 시승에 나서는 중이다.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손태영 이장과 김의열 노인회장, 박귀자 부녀회장이 반갑게 맞이한다.

서림리는 양양군 서면에서도 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산림이 울창한 서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터남아있지만 인근에 서림사가 있어 서림골로 불리기도 했다. 백두대간을 끼고 있어 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숲과 계곡이 장관이다. 그러나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과거엔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이기도 했다. 마을에서 나오 자란 김의열 노인회장은 체험마을로 유명해진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산과 산사이 해를 담고 있는 해담마을

2007년 서림리가 체험마을로 변신을 꾀하기 시작할 무렵 지금의 '해담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다. 깊은 산과 산 사이에 해를 담고 있다는 의미다. 양양군의 행정지명인 서림리보다 이제는 해담마을이 더 익숙하고 유명해졌다. 해담마을은 계곡과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온몸으로 체험할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다.

"옛날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죠. 사람들이 저보고 앞산 뒷산 꼭 막혀서 논밭도 없는 데서 뭘 먹고 사냐고 했어요. 산이 대부분이라서 농사도 못 짓고 산에서 나는 나물, 벼섯을 뜯어서 내다 팔고 먹고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보고 좋은데 산다고, 복 받은 데서 산다고 부러워합니다."

40년 전 옆 마을 오색에서 시집온 박귀자 부녀회장은 결혼 할 때 친척한테 연락도 안 했다고 한다. "산골 오지로 시집 오다보니까 창피해서 친척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못 살고 가난한 동네라서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서울 사는 친구들이 이제는 저보고 천국에 산다면 제일 부러워해요."

이제는 체험마을 성공사례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찾아오는 이들도 많다. 이제는 마을주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자랑스러운 마을이 됐다.



수 있는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서 점점 입소문을 탔다. 이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계곡과 언덕을 오가는 스릴 있고 짜릿한 수륙양용차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이 밖에도 카누, 카약, 뗏목 타기, 서바이벌 게임, 물고기 맨손 잡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의 힐링이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레포츠 체험은 물론 펜션, 방갈로, 캠핑장, 워크숍이 가능한 세미나실, 건강한 친환경 재료로 차린 먹거리까지, 해담마을에선 편안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맞춤 휴양이 가능하다.



20년 넘게 마을주민들이 일군 땀방울의 결실

해담마을은 현재 80가구에 17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56가구가 마을법인에 가입해서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중이다.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장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정보화마을운영위원장 등 마을에서 운영하는 모든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4년째 이 장직을 맡고 있는 손태영 이장은 그 전부터 마을 운영 총무로, 반장으로 25년간 마을의 든든한 일꾼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마을 이장은 사업가라고 보면 돼요. 마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숙박, 체험, 농산물 가공식품생산 모든 다 열심히 홍보해서 팔고 관광객 유치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거의 주말도 없이 사무실에 나와서 살다시피 합니다.”

해담마을은 20년 전 김의열 노인회장이 이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캠핑장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의 사업을 시작했다. 초

창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발 벗고 나서서 솔밭을 정리해 캠핑장 기초 터를 다지고 논을 주차장으로 만드느라 고생도 많았다. 방갈로 10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1동의 방갈로, 펜션 18동, 캠핑야영장 3곳으로 확장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10여 가지가 넘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년 전 마을 주민들이 캠핑장을 일구기 시작한 것이 토대가 돼서 지금의 체험마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 마을 캠핑장을 만들 때 주민들은 따로 사례비도 없이 오로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 지금의 해담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협신과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은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고 연말에 수익이 나면 배당금으로 돌려줍니다.”



마을 안에서 누구나 잘 먹고 잘사는 꿈

지난 2020년 10월 첫 주, 한 이동통신사에서 강원지역 관광객 동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해담마을이 춘천 남이섬을 제치고 5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보다 작은 중소형 관광지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해담마을은 2019년 매출 11억 3천만 원을 달성한 이후 코로나19로 잠시 매출이 줄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매출은 10억 원 달성이 목표다. 체험과 숙박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손태영 이장의 포부 또한 크다.

“아무래도 체험프로그램은 성수기가 있고, 길어야 1년에 6개 월밖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을주민이 일 년 내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마을로 출퇴근했으면 좋겠어요. 연중 꾸준히 수익이 생기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나는 버섯으로 너비아니(떡갈비)를 만들어왔고, 올해는 좀 더 공격적으로 판로를 확장해서 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10년 전부터 버섯을 이용한 축산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규모를 넓혀서 100평형 건물에 HACCP(위해요소증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생산 공장을 만들었다. 표고버섯, 송이버섯, 능이버섯으로 만든 너비아니 3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주요 판매처와 군부대 납품 판로를 뚫었다. 열심히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판매량이 많아지면 점차 주민들의 일



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열심히 전국판매처를 늘리고 있다.

양양군의 120개 마을 중에 직원이 상주하는 마을은 흔치 않다. 해담마을은 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월급을 받는 이장을 포함해서 5명이 일하고 있다. 정부보조인력 2명 외에 자체적으로 마을수입에서 급여가 나가는 구조다. 또 성수기 체험마을을 운영하려면 매일 30~4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연중 꾸준한 일자리로 수입이 생겨서 온 주민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마을 안에서 일하며, 잘 먹고 잘사는 마을을 꿈꾸고 있다. 마을을 떠났던 주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해담마을의 미래를 그려본다.

“우리 마을을 찾는 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머물다가 돌아갈 수 있게, 계속해서 좋은 환경을 더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담마을로 놀러 오세요~”

〈글·사진 : 편집부〉

어부들의 삶을 담은 인생음식 처음에는 생소하고 충격적이었던 물회!

흔히들 ‘물회’하면 어부들이 뱃전에서 급하게 한 끼 식사대용으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라고만 알고 있다. 가장 유력한 정설(定說)의 유래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물회 한 그릇은 밥도 되고, 국(湯)도 되고, 반찬도 되어주던 어부들만의 별미(別味)이기도 하였고, 별식(別食)이기도 하였다. 때론 술 한 잔에 아주 그만이었던 안주거리가 되어 주면서 그들만의 인생음식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특정 지역 음식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물회를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고추장국물에 날 생선을 넣고 횟감을 건져 먹는 생소하고 충격적인 방식에 외면을 받기도 했다.



녹록지 않은 삶의 바다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

뱃일이라고 하는 게 천하에 둘도 없이 험한 일이라는 것은 뱃사람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한다. 딱히 정해진 물도 없이 맑은 날이든, 구운 날이든 뱃일은 늘상 전투적이고 성화가 빛발치는 바다와의 한판 전쟁이다. 욕설처럼 걸쭉한 뱃일은 예나 지금이나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긴박한 담력과 극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이야 파도를 막아주는 항구시설이 잘되어 있어 인력으로 고깃배를 통나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물으로 끌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든대질’도 필요 없게 되었고, 파도의 위협에 맞선 작은 고깃배에 뱃줄을 묶어 다른 한쪽은 육지 사람들이 잡고 있다가, 뒤집히 기라도 할 것 같으면 재빨리 끌어당길 준비도 필요 없어졌다. 중놀, 가늘(노)을 있는 힘껏 저으며 집채만 한 파도를 넘나들던 불과 20년 전의 뱃일은 어부들에게 막걸리 한 동이로도 풀어내기가 봉창처럼 힘든 일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아래저래 어부의 삶이란 생사롭게 고단하고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일이다. 먹고살자고 선택한 짓이지만 간식, 별식, 별미라도 느긋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여느 일에 비해 한가하지가 않다. 이렇다보니 밥 한술 먹는 것 또한 녹록지가 않다. 바다로 나갈 즈음의 새벽밥상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포구로 돌아올 때까지 빈속이다. 포구에서 지난밤의 흔적들을 뭉텅이로 내려놓고서도 고단한 허리로 다시 바다로 나간다.

짐승의 눈처럼 시퍼런 바다에 어망을 재차 내려놓고 나서야 허기진 등짝을 잠시 채울 요량으로 맹물에 텁텁한 집고추장을 푼 장 국물에 갓 잡은 오징어, 한치, 가자미를 썰어 넣어 먹었다. 찬밥이라도 있으면 더욱 든든한 한 끼 식사였다.



성찬(盛饌)과도 같은 지역 음식

물어뜯듯 사나운 파도라도 쳐대는 날에는 꼼짝없이 긴장을 풀고, 피로를 풀고, 고단한 몸을 누이며, 보약보다 더 좋은 해장술국처럼 즐기기도 했고, 입맛이 마땅치 않기라도 할 때면 횟감을 뚝딱 썰어 넣고 훌훌 휘저어 마시듯 먹었던 성찬(盛饌)같은 물회였다. 물회는 어부가 뱃일 중에 배가 고파서 만들어 먹던 음식만은 절대 아니다. 더욱이 가난한 어부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었던 음식이었거나, 생선살을 곱게 발라 별미로 먹을 형편이 못 되어 먹었던 음식이라 했던 어느 유명 음식평론가의 말 같지 않는 평론도 틀렸다.

물회는 어부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음식이요, 어부들의 고유한 음식 문화이다. 그 애초의 맛과 횟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매콤새콤 달짝지근하지도 않았고, 온갖 해물이며 횟감을 쓸어 담듯 하지도 않았다. 비록 그 본래의 맛을 지금에서야 볼 수는 없지만, 양양에서도 물회를 맛 볼 수 있다. 아직은 이렇다 할 평가가 따를만한 곳이 없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양양의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왔던 많은 양양 어부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양양의 음식임에는 틀림없다. 미식가이든 탐식가이든 먹어야 할 때의 고민은 언제나 ‘무얼 먹을까’이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집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행동의 소재이지만, 이왕이면 삶의 이야기가 수북하게 보태진 신양과도 같은 양양 어부들의 인생음식으로 물회를 재고해본다.

글·사진 :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제8대 양양군의회 출범 3년, 앞으로의 시간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군민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8대 양양군의회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군민의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선진의회로의 기틀을 착실히 다졌다.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출범 3주년을 맞아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 보고 남은 임기의 각오를 밝혔다.



26회 회기운영, 안건 391건 심의 의결

제8대 양양군의회는 2018년 7월 1일 개원 이래 올해 제257회 정례회 까지 임시회 19회, 정례회 7회 등 총 26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39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상화촉구 성명서 및 양양교육지원 센터 기구 확대 촉구 건의문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10건의 건의문 채택으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의원발의 조례 43건, 열린 의회 구현

제8대 양양군의회는 양양군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생활 직결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해왔다. 아울러 청각장애인들의 의정참여 기회 확대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계층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양양군의회는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매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상황 수시점검 및 각종 주요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면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생활밀착형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남은 1년의 과제는,

양양군의회가 8대 의회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다. 아직도 지역의 산적한 현안과제들이 있으나 그 중 제일 시급한 것은 군민의 오랜 염원인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정상화와 서핑의 성지 "핫플레이스 양양"의 명성에 걸 맞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남은 1년, 앞으로는 양양군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책임을 다 하는 의회가 되는 것이다.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12개 안건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타 조례안 4건 등 총12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6월 15일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귀선, 간사 김우섭)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해당조례가 관련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꼼꼼히 살펴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의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섭, 간사 김택철)에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의원들은 예산전용을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상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6월 30일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다.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현안사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됐는지 군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행정의 일부 정체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 해소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양양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하반기 정례회 때 시행해 왔으나 상반기에 실시함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들이 올해 안에 개선하여 하반기 예산심의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감사를 주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간사 이종석)는 지난 28일 시정 7건, 개선 18건, 권고 53건 등 총 78건의 개선사항을 담은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캠핑카 · 카라반에 대한 단속 · 계도 철저, 각종 인허가 시 발생 가능한 민원 사전 차단 및 허가조건 준수 철저, 동해북부선 철도와 관련 우리군 실익 반영 노력, 예산 심의 등 질의사항의 신속한 피드백 노력을 통한 소통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및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 대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 각종 보조금 통합 지원방안 마련, 태풍피해 및 산사태 재해 조속한 대책마련,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획량 증대를 위한 중 · 장기적 대안 마련 등이다.

조선 인조 때 세운 양양의 타루비(墮淚碑)가 현산공원에 있다



현산공원 선정비

■타루비(墮淚碑)란 눈물을 흘리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370여 년 전에 양양부사로 부임한 이상일(李尙逸)은 성품이 온화하면서 청렴결백하여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재직하는 동안 선정을 베풀었기에, 이임하는 부사에 대한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부민(府民)들이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이상일(李尙逸) 부사가 타지로 이임한 후부터 관원과 지방 토호들의 폐해(弊害)가 날로 심해지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참다못한 백성들은 “선정을 베푼 구관 사또를 생각하고 으레 백지 소장을 들고 선정비를 찾아가서 비석을 껴안고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울함을 당한 백성이 이 비석을 안고 울면 비석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같이 울며 그 억울함을 동정해 주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상일 부사의 선정비(善政碑) 이름을 타루비(墮淚碑)라 불렀다고 한다.

선정비를 세운 최초의 위치는 양양읍내 구교리(미륵골)에서 연창리로 넘어가는 고갯길 옆에 구교리 마을 전용의 큰 공동 우물가였는데 1989년 4월 도시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현산공원으로 옮겨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상일(李尙逸) 양양부사의 생애(生涯)를 알아본다

본관은 벽진(碧珍: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 자 여휴(女休), 호는 용암(龍巖), 승지 유번(有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석명(碩明)이고, 아버지는 현령 민선(敏善)으로 김장생(沙溪 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1620년에 생원(生員)이 되고, 10년 뒤인 163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성균관박사를 시작으로 승정원 주서, 사헌부 감찰·지평, 예조·형조정랑, 사헌부장령, 형조참의, 호조참의, 승지 등 내직에 있었으며, 외직으로 양양부사를 비롯하여 안동·영해부사, 진주·길주목사, 황해도·원양도(강원도)관찰사 등 관직이 화려했으며, 진위 겸 진향부사(陳慰兼進香副使)와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원양도(原襄道)와 강양도(江襄道)에 양양(襄陽)의 양(襄)자가 들어간 이유】

조선시대에는 불효 · 패륜 · 역모 등 도리에 어긋나는 죄인이 어떤 지방에서 발생하면 그 죄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등급까지 강등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므로 1666년~1675년(10년간) 강릉(江陵) 강(江)자 대신 양양의 양(襄)자를 써서 강원도(江原道)를 원양도(原襄道)라고 호칭하였는데, 1683년부터 1701년까지 강양도(江襄道)라고 호칭한 적이 있다.

▪ 다음은 이상일(李尙逸)의 신도비명(神道碑銘) 중에 양양부사 재임 당시와 관련된 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옮겨보았다

『…及有襄陽之命 公忻然赴之曰 府境有寡姊居焉 是適所願 居五年棄歸 邑民留不能得 則以其行橐如洗也 相與出粟爭致于家 公固辭不受 則守其門不忍去者 又十許日…』

이를 풀이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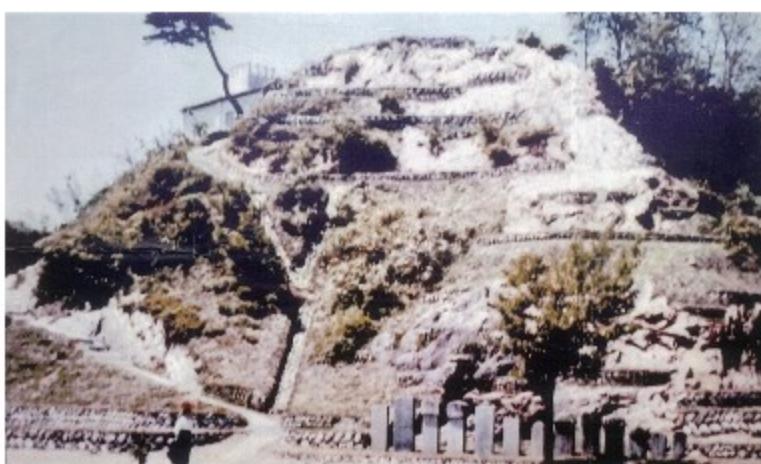
『… 공께서는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임명되자, 기뻐하며 임지로 가면서 말하기를 “그 고을에는 홀로된 누님이 살고 계시니 이는 바로 나의 원하는 바다.” 하였다.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그 고을 백성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만류하면서, 떠날 때 짙어질 망태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서로들 곡식을 모아 앞다투어 공의 사저로 가져오는 것을, 공께서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자, 대문을 지키며 버티고 있으므로 차마 바로 떠나오지 못하고 십여 일이 지나서야 떠났다. …』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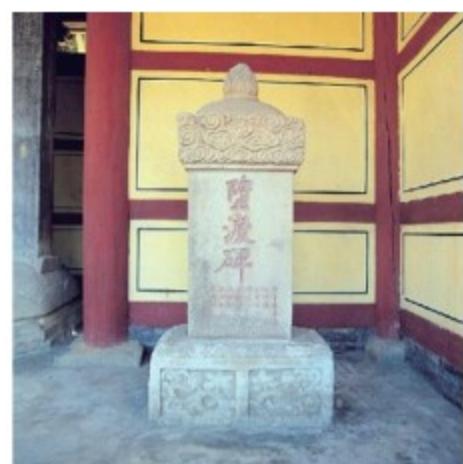
이상일 부사 선정비

▪ 전라남도 여수에도 타루비가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고소대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여수타루비가 있다.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후인 1603년, 수하였다 좌수영의 군사들이 장군의 공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현산공원으로 옮긴 옛 연창리 비석거리 비석



여수 충무공 타루비



양양군, 주민등록인구 13년 만에 2만8천명선 회복

양양군 주민등록인구가 2만8천명선을 회복했다.

5월말 기준으로 양양군 주민등록인구는 28,006명으로 집계됐으며, 2만8천명선을 회복한 것은 2008년 28,115명 이후로 13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대거 공급된 신축 아파트와 택지 입주자가 늘고, 관내 작은 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도 눈에 띠게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됐다. 이는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환경과 전염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양양 지역을 찾는 도시민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은 2002년부터 인구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2018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공동 주택 신축과 택지 개발 등 정주여건 기반 조성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양양군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총 5억8천만 원을 투입,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옥상에 지난 6월 4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지난달 4일 준공했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용량은 183kW으로, 30kW는 공영주차장 자체전력으로 사용하고, 153kW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판매할 예정으로, 연간 24백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간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절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새로운 친환경발전시설의 수요를 촉진하여 관련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관공서가 암장서기 위한 것으로 녹색에너지로 살기 좋은 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양양군 물치어촌계, '즐거움과 낭만이 흐르는 릴레이 축제' 개최

양양군 물치어촌계(어촌계장 이경현)가 강원어촌특화센터「즐거움과 낭만이 흐르는 릴레이 축제」사업 공모에 선정돼 6월부터 테마가 있는 릴레이 축제를 개최한다.

강원어촌특화센터 주관「즐거움과 낭만이 흐르는 릴레이 축제」는 어촌미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번 공모에 도내 30여개의 어촌마을이 지원해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 5월 물치어촌계가 최종 선정됐다.

물치 어촌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물치 도루묵축제를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하는 등 11년간 이어온 도루묵 축제의 전통을 위한 어촌계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물치어촌계는 축제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코로나시대에 맞게 언택트 요소를 가미한 테마와 주제를 담은 릴레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침체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9일 '해변 명축제'를 시작으로 △7월 싱싱회 축제 △8월 해변 북캉스 △9월 모래축제 △10월 차박 캠핑 축제 등 계절별, 테마별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악~물치해변 몽돌소리길 새롭게 단장

양양군이 양양비치마켓이 열리는 설악해변부터 물치해변까지 3km 구간의 몽돌소리길 연장 조성에 들어갔다.

이번 몽돌소리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과 물치해변까지 이르는 총 3km 구간을 양양비치마켓 예술작가와 협업하여 서핑해변에 예술감성이 흐르는 힐링로드로 조성한다.

바다의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스페이스 조성, 수작업으로 만든 나무그네 설치, 기존 낙후한 조형물들에 전문화가 페인팅과 일부 벤치에 팝아트 그래픽을 가미하는 등 아름다운 몽돌의 속삭임을 들으며 걸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산책로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7월말까지 몽돌소리길 조성이 마무리되면 기존 설악해변부터 정암해변까지의 구간과 이어지는 총 3.0km 구간이 동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몽돌해변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보다 멋진 풍광과 즐거움을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작은영화관, 무료 영화상영회 '라떼 시네마' 운영

양양군이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을 응원하고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영화상영회 '라떼 시네마'를 운영한다.

'라떼 시네마'는 6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양양작은영화관에서 상영하며, 상영시간은 월별 상영예정작의 러닝타임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월 1편의 국내·외 고전영화를 선정해 상영할 계획이며, 상영 예정작으로는 ▲7월 '타이타닉' ▲8월 '8월의 크리스마스' ▲9월 '알라딘' ▲10월 '사운드오브뮤직' ▲11월 '사랑과 영혼' ▲12월 '아웃집토토로'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했다.

영화 관람은 양양군민에 한하여 가능하며, 작은영화관 제1관에서 1일 3~4회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 관람을 희망하는 군민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4일전부터 작은영화관을 방문하여 사전예매를 하면 된다. 예매는 1인 2매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양양 텀블러' 새롭게 변신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양양 텀블러'가 새롭게 단장하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15개 업체 및 농가의 표고분말·표고자, 송이과자·셀리, 뚝딱 바빔곤드레·시래기강된장, 장류, 전통주류, 장아찌류, 생들기름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농·특산가공식품 50여개 품목을 판매중이다.

또한 2층에 위치해있던 농산물판매장을 구매자 동선과 시선을 고려하여 최근 1층으로 이동하여 활발한 판매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님 유치를 위해 속초와 양양지역의 숙박·음식점 이용 명수증을 가져오면 음료주문 시 '커피 한 잔 무료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오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운영을 위해 현재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객과 일반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도록 판매와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양군, 주민세 과세체계 확 달라졌다

양양군이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 했다.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는 매년 7월 사업소 면적(330㎡이상)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8월에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종전대로 8월에 부과고지 되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8월 주민세(사업소분)를 100% 감면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택스 또는 세무회계과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강원국제교육원 개원 세계시민 · 다문화 · 외국어교육 통합 지원

강원도교육청이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에 있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해 지난 1일 개원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세계시민 · 다문화 · 외국어교육을 통합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56억원을 들여 학생체험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연수관을 증축해 다양한 연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원국제교육원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체험중심 외국어교육, 세계시민 교육의 일상화, 미래 교육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다문화 교육의 보편화 등을 이루고자 학생 캠프, 교직원 연수를 진행한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 다양한 나라와 협약을 이어가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 주 · 정차 집중단속

양양군이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 · 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현재 모두 11대의 불법 주 · 정차 단속 용 OCTV를 설치 · 운영 중이며, 16개 구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 · 정차를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5대 불법 주 · 정차 금지구역인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 · 정차 건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주 · 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화물차 5만원(어린이 보호구역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양양전통시장



1960년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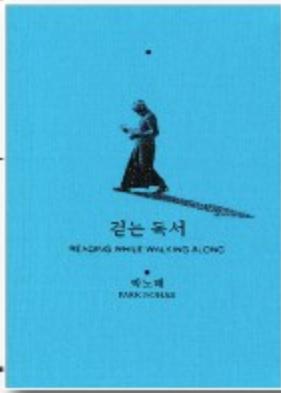
모처럼 시장에 가 보면
시끌벅적한 소리와 비릿비릿한 내음새.
비로소 살아 있는 사람들의 냄새와 소리들,
별로 살 물건 없는 날도
그 소리와 냄새 좋아 시장길 기웃댄다.

〈시장길 / 나태주〉

이달의 책이야기

걷는 독서

박노해 지음 | 느린걸음 | 2021. 6월



단 한 줄로도 충분하다

삶의 길잡이가 되어줄 박노해 시인의 문장 423편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형식의 책. 박노해의 『걷는 독서』는 단 한 줄로 충분하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자신감 갖기가 아닌 자신이 되기”

“일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일하게 하라”

“패션은 사상이다”

“악의 완성은 선의 얼굴을 갖는 것이다”

“적은 소유로 기품 있게” 등

한 줄의 문장마다 한 권의 책이 응축된 듯한 423편의 글과 박노해 시인이 20여 년간 기록해온 세계의 숨은 빛을 담은 컬러 사진이 어우러져 실렸다. 총 880쪽에 달하여 마치 경전이나 사전 같아 보이는 두께감,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와 하늘빛 천으로 감싼 만듦새는 작은 핸드백처럼 아름답다.

책 속 한구절

■ 이 책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날마다 계속해온 나의 ‘걷는 독서’ 길에서 번쩍, 불꽃이 일면 발걸음을 멈추고 수첩에 새겨온 ‘한 생각’이다. 눈물로 쓴 일기장이고 간절한 기도문이며 내 삶의 고백록이자 나직한 부르짖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리운 그대에게 보내는 두꺼운 편지다. _12쪽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잠시 먹기를 멈추면

제이슨 평, 이브 메이어, 메건 라모스 지음 | 이문영 옮김 | 김기덕 감수 | 라이팅하우스 | 2021. 6월



삶을 리부팅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간헐적 단식 비만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가 알려주는 ‘간헐적 단식’의 모든 것

단식 치료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했다. 세계적 명성의 비만 전문의 제이슨 평과 저탄수화물 식단 전문가 메건 라모스, 그리고 이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삶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한 평생 다이어터 이브 메이어가 단식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각자의 전문가적 시각에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균형 잡힌 안내서 《잠시 먹기를 멈추면》(라이팅하우스 출간)을 출간했다.

마음이 자라는 그림책 읽기

이정은 지음 | 넥서스BOOKS | 2021. 6월



생각의 힘을 키워 주는, 질문과 놀이를 담은 그림책 100 “4~10세 아이에게 어떤 그림책을 읽어 줘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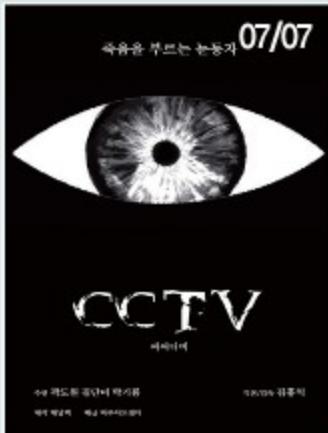
10년 이상 아이들과 그림책으로 소통해 온 독서 지도사의 책읽기 노하우!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 줘 본 대부분의 부모들이 갖는 고민이 있다. “이 책이 아이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글자를 읽어 주는 것만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책을 읽어 주면 좋을까?”

독서 지도사이자 10년 이상 아이들과 그림책으로 소통해 온 저자는 이러한 고민들을 날려 줄 그림책과 질문들을 오랜 시간 모아왔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20-2289 / FAX 033)62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금호건설(주) (양양현성)	1명	환경관리자	07:00~18:00 (주5일)	연3,000만원
모정의집	1명	요양보호사	08:30~17:30 (주5일)	월200만원이상
스위트호텔낙산	1명	룸메이드	08:30~17:30	1일 9만원
천영유통	1명	상품진열원	10:00~18:00 (주5일)	시급8,720원 ~9,000원
㈜서중글로벌 (소리스트콤피호텔)	1명	시설물 유지보수원	3조2교대	월200만원이상
㈜마총얼안에프	1명	구내식당 주방보조원	10:00~14:00 (주5일)	시급9,000원
	1명	자재구매·물류사무원	09:00~18:00 (주5일)	연2,200만 ~2,600만원
	1명	품질관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연2,200만 ~2,600만원
강선나이파트 관리사무소	1명	시설관리원	7시~의일7시 (격일근무)	월227만원
㈜골든에스엔씨	3명	한식조리사	05:30~14:30 10:30~19:30	월235만원이상 (협의)
	3명	청소원	08:30~17:30	월220만원
	5명	사우나/리카 관리원	06:00~15:00 12:00~21:00	월224만원
㈜남양인더스트리	1명	절곡기사	08:00~17:30 (주5일)	월190만원
낙산요양원	1명	사회복지사	09:00~18:00 (주5일)	급여법의

‘양양문화재단 출범 기념공연’ 안내

- ▣부 제 : “문화예술?... 키워드는 이제 양양입니다!”
 - ▣일 시 : 2021. 7. 16(금) 오후 4시
 - ▣장 소 : 양양군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
 - ▣소요시간 : 1시간 15분
 - ▣주 최 : 양양군
 - ▣주 관 : 양양문화재단
 - ▣출연진 : 경기팝스양상불 (팝스양상불), 강원도립무용단 (무용)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https://yangyang.scinema.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033-673-7050

전세대출 문턱 낮추는 전세자금특례보증

▣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 보증대상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번제금을 2년(24회차)이상(프리워크아웃 지원자인 경우 12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백만원)

▣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 보증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 징검다리 전세 특례보증

- 보증대상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인 자.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이며, 제1금융권(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 하는 자.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공공임대주택은 90%) 이내 최대 1억 5000만원

※ 보증 이용 시 보증료 : 연 0.05%(최저보증료율 적용)

※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033-660-4711~4)

2021년 경영회생지원사업 시행 알림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부채 상환

- 농업인에게 매도 농지에 대한 장기임차권 및 환매권 부여

▣ 사업대상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033-630-0122)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안내

▣ 개요

- 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도·군 20만원 5년씩 납부 후 근로자에게 3천만원 내외를 지원함으로써,
-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신청자격

- 근로자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소상공인 포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창출부서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기업 및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이내),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 근로자

안심공제 계약(청약) 신청서, 근로계약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 기타

-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입니다.
- 신청서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033-670-2179)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양양군청 및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1세대당 차량1대 등록가능
- 양양군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로서 법인·단체별 1대 등록가능

▣ 대상차종 :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 감면횟수 : 차량 1대당 1일 왕복1회 감면

▣ 문의 : 양양군청 전략교통과(☎033-670-2170)

어느 출향인사의 감사편지

*서울시에 사시는 출향군민께서 보내주신 손편지입니다. 앞으로 더 군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양양소식」誌 구독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아울러 지난 6월 소식지에 실린 “인제육성 장학기금 100억원 일정의 주인공”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양양인으로서의 의지와 행동에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과거 도농통합(都農統合) 속초, 양양에서도 그랬듯이 삽발하고 금식
하면서 통합에 반대한 양양 주민들의 의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고향의 변한 모습의 이모저모〉

고향 소식의 전령자 「양양소식」 정기 간행물을 받아보면서 날로 변화 발전
하는 참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도랑 치고 가제잡고, 미역 잡고 철영 하던 곳이 도로로 포장되어 빅스와
택시 각종 차량이 대고 소외 사람의 등짐으로 농작물 운반하던 소질메와
지게가 사라져가며 보내기 철이면 들불마다 아주머니와 아낙네들의 머리에
함께 그릇과 두가지 그릇에 점심을 나르는 옛 모습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추억으로 남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오늘의 양양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양양하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렇게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멀어진
탓인가 봅니다. 참으로 “여안해”입니다

내고향 양양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일간지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보내기가 시작되면 “모를 째고 물품팔이 물려 노동”(일명 질이
라고 함)이 사라지고 옛 모습은 찾아 볼수 없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토박이와 이양기가 등장하고, 명농목적으로 기르던 소는 이제

식통으로 재산을 증축하여 자립도가 약하지만 풍요로운 생활을 하여 또한 문화 생활도 도농(都農)이 따로 없습니까.

이렇게 청정 지역에서 우리 고향은 자립도가 약합니다.

특히, 우리 고향은 관광사업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산수가 화려한 설악산과 동해 바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설악산 재미를 찾는 필수적이며 후세에게 숙제로 남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환경 단체에서는 자연 해손이라 반대 하지만 오히려 자연을 보호합니다.

동반객의 각종 오물 쓰레기 운반 흡수율 보호, 산불 예방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인한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고향 발전 모습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쟁 집단희생·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기간

2020. 12. 10. ~ 2022. 12. 9.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각 지방 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제외공관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 신청 서식은 www.jinsl.go.kr 또는 각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Tel. 02-3393-9700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학살도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에 문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살해·신체상해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한정[설사] 피고양위 등 위법 또는 엄지히 무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살해 사건, 그 밖에 충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직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침통상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태평·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자체적인 내용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참조

건설근로자들의 행복을 더해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단체보험(보장성 실비)

상해·질병의 위험에서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

지원내용 현대해상 해상실비보험 무료 가입 (보험료 0,000원)

신청기간 2021년 연중

종합 건강검진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국 50개 건강 기관을 통한 내시기·CT 등 지원

지원내용 종합 건강검진 무료 지원 (보험료 1,400원)

신청기간 2021년 4월

결혼·출산 지원금(유산 위로금)

세포온 가족을 위한 건설근로자를 축하하고,

여성근로자의 유산시 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 50만 원

출산 지원금 30~70만 원

유산 위로금 20만 원

(보험료 2,250원)

신청기간 2021년 연중

초등학생 취학자녀 지원

소중한 자녀의 인생을 축하하는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유학금 또는 학교·근로복지·설립금·

건설근로자 전자기록제 20만 원 상당의

네우체 지급 (보험료 1,000원)

신청기간 2021년 3월부터

고령자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온라인을 통해 무상 강사와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 수강권 지원

지원내용 견적서 무료 수강권(수강자수 300명)

2개월 무료 수강권(수강자수 102명)

신청기간 2021년 4월부터

대학생 푸른동네 기부장학금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가 생활의 걱정 없이

준부를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지원내용 1학기: 5,000원을 시작하며

장학금 100만 원 지원

신청기간 1학기(신청기간): 2학기: 2021년 7월까지

장애인화장실 지원

가족이 즐거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인도 지원

지원내용 휴가금(국내 여행 소모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관 단위 온라인 교인도 지원

(건설근로자 및 청년기부 1,000원)

신청기간 2021년 5월 6일

사은·영상공모전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한 공모전 개최

지원내용 2021년 5월~6월 접수

집회부문 건설기술인·기술인·부동

(총 15명 시상 계획)

*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는 퇴직금계율 적용일수 252일 미달이고, 직전년도 적금일수가 100%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적인 지원 자격과 사업 후원 영정은 개별 시장별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한주센터 083-746-5711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한국국토정보공사빌딩 2층

정보꾸러미

The poster features a young boy sitting on a beach, holding a long stick with a large, colorful kite (white, blue, and yellow) attached. The background shows stylized white waves on a pinkish-orange gradient. In the top right corner is the logo for '양양군' (Yangyang County) with three colored circles. Below the boy, the Korean text '여름 해수욕장 개장' (Summer Beach Opening) is written in large, bold letters, with '여름' above '해수욕장 개장'. Underneath this, the English text 'NEW OPENING' is displayed in large, bold letters. At the bottom, the dates '2021 / 07 / 09(금) ~ 21 / 08 / 22(일)' are shown. A small note at the bottom left states: '※ 양양군 SNS 충보용 영상자료입니다. SNS도 확인하셔서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followed by links to Facebook and Instagram.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1. 7. 12.(월)부터

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오늘의 경제를 듣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합니다

경제총조사는 우리 경제의 역사가 되는 뿌리통계입니다

2021년 6월 14일 ~ 7월 30일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 조사 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전국의 사업체
- | 조사 방법 | 대면 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
 - 대 면 조사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비대면 조사 : 인터넷 *(PC, 모바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조사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직접 입력
- | 조사 기간 | 2021년 6월 14일 ~ 7월 30일
2021년 6월 14일 ~ 7월 9일 인터넷 조사(PC, 모바일) 참여 가능
- |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 www.ecensus.go.kr